

무서운 기름값…광주 2000원대 육박

중고 대형차 매물 쏟아진다

판매문의 10~30% 급증 거래는 '뚝'…연비 좋은 경차는 인기

한 달 가까이 기름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승용차를 매물로 내놓은 운전자들이 늘고 연비가 좋은 경차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 대형차를 반기지 않아 가격마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갱신한 5일부터 24일까지 20일째 상승하며 1당 1980.44원까지 치솟았다. 이리자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차를 중심으로 중고차 판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중고차 쇼핑몰 '카페알'(www.carpal.co.kr)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중고차 판매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신차급 중고차와 수입차, 대형차종의 중고차 판매 문의가 올 초 대비 각각 10~30% 가량 증가했다. 판매 문의가 늘어난 승용차는 그랜저TG, 뉴그랜저XG, 뉴SM5, 아반떼MD, NF소나타, YF소나타, 에쿠스 순으로, 대부분 중형급 이상 대형 차종이다. 연식도 2009~2011년식으로 출고 1~3년 미만의 신차급 매물들이 전체 상담 매출의 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4일 광주지역 한 중고차 매

장에는 연식이 오래돼 기름 소비량이 높은 에쿠스와 그랜저 등 중고 대형 차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고차 업계에선 연말 연식변경에 의한 가격하락 우려와 고가의 신차 구입에 따른 할부 이자 부담, 단순 차종 변경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기름값 상승에 의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페알 마케팅 담당자는 "유지비 부담으로 대형차의 판매와 가격은 하락세인 반면, 연비가 좋은 마티즈나 뉴모닝과 같은 인기 경차 모델과 경유를 사용하는 SUV·RV차량을 찾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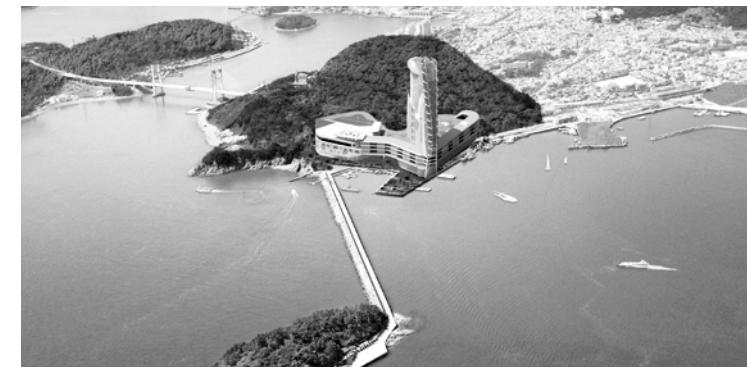
대명레저 1200만원대 회원권 특별분양

골프·리조트 등 무료·할인

국내 레저업계 1위인 대명레저산은 청립 32주년을 기념해 하프페밀리 실속형 회원권을 특별 한정 모집하고 있다. 분양 가격은 개인 기명의 경우 1230만원, 법인 무기명은 1330만원이다.

이 회원권은 패밀리 객실을 연간 20일 사용하는 실속형으로, 분양과 동시에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

회원권 소지자는 골프, 스키, 오션월드, 아우라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고, 전국의 대명리조트(설악·경주·양평·홍천·



내년 3월 문을 여는 대명리조트 여수 조감도.

지구에 25층, 282실 규모의 특급 호텔 및 리조트로 건립되며, 엑스포 기간동안 국내외의 귀빈들의 숙박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대명리조트 거제도 2013년 문을 연다.

대명레저 관계자는 "대명리

조트는 단순히 숙박만이 아닌 레저 스포츠,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종합레저타운"이라며 "최초 계약에서 예약 관리까지 1대 1로 전 담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 및 문의 02-2222-5919.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SK텔레콤 "F1 대회 통화품질 최우수"

SK텔레콤이 지난 14일부터 3일 동안 열린 영암 F1(포뮬러)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자사 통신망의 통화품질이 가장 우수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서부네트워크본부 광주 품질관리팀에 따르면 행사가 열린 3일간 16만명의 관객이 운집, 불통사태까지 예상됐던 F1 현장은 19시간 통계기준 1266만9000회의 트래픽이 발생했으며 16일 피크시간대에는 32만호가 한꺼번에 몰리는 등 평시 대비 통화량이 446%가 증가했으나 소통률 97.6%로 양호한 품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측은 이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자사와 협력사 인력 117명을 현장에 비상대기시켰으며 이동차량기지국 5식을 포함, 24개 기지국과 광중계기 등을 운영,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

객에게 우수한 통화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한발 앞선 생각과 서비스로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000대 기업 임금

평균 6.8% 인상

국내 1000대 기업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 인상률은 6.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000대 기업 직장인들의 연봉데이터 3만395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통계는 회원들이 직접 기재한 근무 연차와 연봉을 토대로 집계된 것이다. 평균 연봉은 1년차 직원들이 2797만원으로 조사됐으며, 3년차 3390만원, 5년차 3975만원, 10년차 5939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aT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광주시 광산구 '우산월곡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24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광산구 '우산월곡시장 상인회'(회장 전계일)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aT 광주전남지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가족과 함께 월 1회 이상씩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업무관련 포상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3년

차 3390만원, 5년차 3975만원, 10년

차 5939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종경 광주전남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1900선 앞둔 코스피

유럽 재정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지수가 3% 넘게 급등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59.94포인트(3.26%) 상승한 1,898.32포인트로 마감했다. 시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미·EU 재정위기 내년 본격 영향"

제조업체 57% 전망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18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세계 재정위기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상한 기업이 전체의 56.9%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 말(31.3%), 내년 하반기(8.1%), 내후년 이후(3.7%) 순

이었다. 미국·EU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 불안이 이미 국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2%나 됐다.

국내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응답기업의 66.6%가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비슷하다'와 '많이 어려워졌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19.7%, 9.8%로 나타났다. 매출에서는 절반 가량(50.8%)의 기업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월평균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문량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54.5%, 59.0%이었다.

최근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관련한 물음에는 '상반기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57.9%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섬유·의류·신발,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모두 경영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정부가 역점을 둘 필요로 한 정책과제로는 환율·금리 등 금융시장 안정(41.3%), 원자재가 및 물가안정(33.2%), 내수 활성화(10.6%), 기업 투자여건 개선(6.8%)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발급 1억2000만장 돌파

국민 1인당 4.9장

금융 당국의 강력한 신용카드 규제 조치에도 카드 수가 1억2000만장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인당 보유 중인 신용카드가 4.9장에

달해 카드 시장이 과열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억2230만장의 신용카드가 배포돼 지난해 말의 1억 1659만장보다 570만장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본다면 올해 들어서 6개월 만에 국민 9명 가운데 1명이 신용카드를 한장씩 더 갖게 된 셈이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

어나기 전년과 비교하면 1750만장이나 늘었다. 신용카드 수는 1990년에 1038만장에 불과했으나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 1억480만장으로 정점을 찍고 주춤거리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2008년 9624만장, 2009년 1억699만장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용카드 수는 경제활동인구(2543만명)의 4.9배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재학나 융역을 생산하려고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즉 취업자 또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1인당 4.9장의 신용카드를 가진 셈이다.

지난해의 1인당 4.7장에 비해서는 올해 상반기 비교하면 0.2장 늘었다. 올해 1분기의 4.8장에 비해서도 불과 3개월 만에 0.1장이 증가해,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보유 수가 5장을 넘을 전망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이 급증한 것은 올해 KB국민카드 등이 새로 생기면서 카드사 간에 경쟁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우리은행의 카드 사업이 분사할 예정이나 카드 발급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최근 들어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종류가 많아지고 주유비나 통신비 할인 등 특화된 신용카드도 많이 나와 카드 발급 수가 늘고 있을 뿐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축성예금 증가율 3년만에 최저

8월 7.9% 증가 그쳐

말 가계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388조 909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저금리 국면

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저축성예금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8월 현재 은행의 저축성예금

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 가장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 코스피지수	1898.32 (+59.94)
▲ 코스닥지수	493.03 (+11.81)
▲ 금리(국고채 3년)	3.53% (+0.04)
▼ 원·달러 환율	1134.40원 (-13.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급 공무원 시험 [국방부]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한빛고시학원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개강: 11월 1일